

광양 K-POP 페스티벌, 100배 즐기는 완벽 사용설명서

라인업, 입장시간 등 공연 안내부터 이벤트, 체험존 등까지 깨알 같은 꿀팁 총정리

제5회 광양 K-POP 페스티벌이 오는 17일과 18일, 광양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와 함께 화려한 라인업으로 성대하게 개최된다.

이번 페스티벌은 아이돌, 발라드 등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선보이는 K-POP 무대와 참여형 프로그램 등으로 꾸며지며 광양의 새로운 관광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신인부터 레전드급 아티스트까지 폭넓은 무대 스펙트럼

첫날인 17일(금)에는 경서, 아홉, 우디, 트리플에스, 헤이즈 등 젊은 세대들에게 꾸준히 사랑을 받는 아이돌과 댄스 뮤지션들이 출연해 페스티벌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군다.

둘째 날 18일(토)에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무대로 가을밤 잊지 못할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한다.

1부는 어반자카파와 웬디, W3WAY와 숨이 깊은 울림으로 가을밤 정취를 물들이고, 2부에서는 박군과 지원이가 흥겨운 트로트로 전 세대가 즐기는 공감형 콘서트를 완성한다.

이에 앞서 오후 4시 30분부터는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본선이 주무

대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린다.

예선을 통과한 10개 본선 진출팀이 완벽한 팀워크와 열정적인 퍼포먼스로 실력을 겨루며, 수상팀은 곧바로 시전 공연 무대에 올라 현장의 열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입장 및 공연 안내

공연은 양일 모두 오후 7시부터 약 2시간가량 진행되며, 관람객 입장은 오후 3시 30분부터 정문·가문·라문 3곳의 출입구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페스티벌은 전석 무료입장으로, 사전 예매분은 이미 매진되어 전국적인 관심과 높은 기대감을 입증했다.

시는 미처 예매하지 못한 관람객을 위해 행사 양일 오전 10시부터 현장에서 당일 입장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푸드트럭 운영 및 참여형 콘텐츠 확대로 오감만족

시는 관람객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체험형 축제를 위해 푸드트럭, K-POP 포토존, 매몰이체험존 등을 운영한다.

또한 체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지·먹거리·숙박 연계 할인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콘서트장 입구 푸드존에는 스테이크, 닭꼬치, 닭강정, 떡볶이, 핫도그, 소

떡소떡, 어묵, 커피 등 입맛을 사로잡는 풍성한 메뉴가 마련된다.

K-POP 포토존에서는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 이벤트가 열리고, 광양 캐릭터 '매돌이'를 활용한 오락체험존과 SNS 인증 이벤트도 진행돼 젊은 세대의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

또한 구르르커피로스터스본점, 냉고집, 달보름떡집, 서산찜닭, 소학재한옥펜션, 요거프레소쥬스점, 티파티모텔, 필브라더 등 참여업체에 페스티벌 입장권을 제시하면(17일~19일) 1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안전·운영·홍보 강화

광양시는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며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양경찰서, 광양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조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글로벌 관광축제의 위상에 걸맞은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고, 신문·방송·광학관광 공식 SNS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전방위 홍보를 추진한다.

특히, 행사 당일에는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생중계를 진행해 현장 열기를 전국과 해외로 생생히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큰 계절 특성을 고려해, 관람객들에게 보온을 위한 겉옷이나 무릎담요 등을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현주 관광과장은 "제5회 광양 K-POP 페스티벌은 음악과 문화, 관광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축제로, 광양공설운동장은 관객의 함성과 열기로 가득 찬 생동감 넘치는 현장이 될 것"이라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기고 안전하고 폭력 없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노벨문학도시 장흥, 보림사 비자림 음악제' 18일 개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공연 펼쳐져

장흥군은 오는 10월 18일 보림사에서 '노벨문학도시 장흥, 보림사 비자림 음악제'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음악제는 장흥이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고향이라는 상징성을 바탕으로, 문학과 예술,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문화축제로 기획되었다.

공연은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 김경호와 9인 밴드가 폭발적인 라이브 무대를 선보인다.

또 감성 보컬의 진수 적우와 Mellow 현악 3중주는 고찰의 풍광과 어우러지는 서정적인 선율을 들려줄 예정이다.

사회는 배우 오지호와 2025 미스코리아 제주 진 함지훈 씨가 맡는다.

부대 행사로는 전미라 화백의 민화 작품 30점이 전시되고, 지역 특산물 판매, 문화재 해설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전남도와 장흥군이 후원하는 이번 음



악회는 무료 공연이지만 모바일 티켓 신청(bbseven.co.kr)이 필요하다. BBS 광주 불교방송, 광주 백선청원모임, 화순 석천사, 장흥군청, 보림사 등에서도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장흥군 제공

곡성군, 동화정원 가을 꽃 음악회 개최

꽃과 음악이 물드는 계절, 시월애 어느 멋진 날

곡성군(군수 조상래)이 가을 정취가 절정에 이르는 오는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황화코스모스가 만개한 동화정원에서 가을 음악회 '시월애 어느 멋진 날'을 개최한다.

올해 초 유채꽃이 만발했던 동화정원에서 이미 봄의 향기를 가득 담은 음악회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는 가을의 주인공 황화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핀 공간에서, 다시 한번 계절의 낭만을 음악과 함께 전할 예정이다.

음악회는 18일부터 19일 양일간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자연과 음악, 체험이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가족, 연인, 친구 등 누구와 함께해도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자리로 기대를 모은다.

공연은 총 3팀이 무대에 오른다. 섬세한 선율로 가을의 분위기를 더할 전자현악무역을 시작으로, '미스트롯3'와 '골 때리는 그녀들' 등에 출연하며 국내 팬들에게 친숙한 스페인 출신 아티스트 라라 베니토가 감미로운 무대를 선보인다. 이어 깊고 풍부한 음색으로 사랑받는 팝페라 그룹 레디스가 웅장한 하모니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공연과 함께 다양한 가을 감성 체험 프

로그램도 운영된다. 화분 만들기, 배스밤·갓 카링·전통 노래개 등 케데넨 굿즈 만들기, 걱정이 인형과 비즈로 꾸미는 플라워 소품 만들기 체험 등이 준비돼 있다. 이 밖에도 캐리커처 체험과 로즈카피, 꽃차 시음 코너도 운영된다.

일부 체험 프로그램은 유료로 운영되며, 사전 신청(<https://naver.me/5u9GHqLZ>)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행사장 내에는 SNS 인증 이벤트 부스와 보물찾기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돼 관람객들에게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 중에는 관람객의 이동을 편의를 위해 기차마을-동화정원 간 셔틀버스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시로 운행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황화코스모스가 만개한 동화정원에서 음악과 체험이 어우러진 이번 행사를 통해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곡성/이정수 기자

광주 시립도서관 '예술 놀이터'가 되다

무등·사직·산수도서관, 강연·전시·체험 등 10월 문화행사 풍성

광주광역시립도서관(무등·사직·산수)은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가족들이 도서관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강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 '도서관, 예술 놀이터가 되다' 행사를 운영한다.

무등도서관은 10월 한달 간 가을·책 주제 '민화 단채전'과 자료실 테마도서 전시를 연다. 오는 24일 아트컬러터 이소영(미술 에세이스트)의 '현대미술 콜로즈업', 31일 예술감독 정재윤(aka 쥘리정)의 '문학 속 음악의 장면들', 19일과 29일에는 '제로웨이스트 특강'으로 친환경 비누 만들기과 캘리그래피 팁블러 만들기 체험 행사를 운영한다.

사직도서관은 10월 한달 동안 전통문

화 '조선 화원의 하루' 원화 전시, 자료실 테마도서 전시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22일 이승연 작가의 '케이(K) 콘텐츠의 중심 한국 영화를 말한다', 25일 '나만의 보자기 가방 만들기'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산수도서관은 13일부터 24일까지 '엄마는 좋다' 그림책 원화 전시와 연체해 해방의 날 행사를 운영하고, 16일에는 빛과 무늬로 완성하는 자개거울 체험을, 23일에는 실용과 멋을 담은 냄비받침 체험을 할 수 있다.

강연 및 체험은 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립도서관 누리집(citylib.



gwangju.go.kr)을 참고하거나 무등도서관 문화정보과(062-613-7727), 사직도서관 (062-613-7779), 산수도서관(062-613-78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경희 시립도서관장은 "10월은 나를



이하기 좋은 계절이다. 시립도서관에서 준비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이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며 "시민들에게 배움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풍성한 10월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혜경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국민의 마음을 위한 정책사업

보다 나은 농어촌

농

지가 있다면

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어

금이 있습니다

기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